

사사기 7.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5 장 1 절-31 절]

1. 들어가기

오늘 본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 속에는 절망의 시절 드보라가 일어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이야기와 그 과정 속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만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였고, 다른 지파들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오히려 무관심하였다는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헤벨의 아내 야엘은 여인의 몸으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용기를 보여주었음을 칭찬하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끄셨는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원수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여 돕는 자들은 승리후 힘있게 설 것이라 선포합니다.

2. 8 부분으로 나누어진 드보라의 노래

	성경	표 현	
1.	2-9 절	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노래 하려고 하는지를 알림	목적
2.	10-11 절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자는 권면	권면
3.	11 절하-12 절	백성들이 드보라에게 호소	호소
4.	13-18 절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각 지파에서 모이는 장면	묘사 1
5.	19-23 절	이스라엘의 전투 장면	묘사 2
6.	24-27 절	시스라의 죽음	묘사 3
7.	28-30 절	시스라의 어머니가 시스라를 애타게 기다리는 장면	묘사 4
8.	31 절	드보라의 소망	결론

3. 노래의 목적 (2-9 절)

- 1) 2 절: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 모두 한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_\_\_\_\_로 알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 2) 3 절: "왕들과 방백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아닌 이방의 왕들과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곧 드보라는 이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_\_\_\_\_하고자 했습니다.
- 3) 4 절: 세일과 에돔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지나온 사해 남동쪽의 광야였습니다. 곧 출애굽 하여 광야를 통과할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하였습니다.
- 4) 5 절: 드보라는 특별히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기손 강에서도 역사하셨음을 깨달으며 찬송하였습니다.

- 우리도 성경을 통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배우며,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5) 6-9 절: 드보라는 자신이 사사로 등장할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고백하였습니다.

- “대로가 비었고 사람들은 소로로 다녔다”는 표현은 그 만큼 노상에서 약탈당하는 일이 많았다는 현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 “관원이 그쳤다”는 것은 새로운 지도자가 없었다는 말로 그로 인해 백성들은 제 멋대로 삶을 살았고,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연약한 여성을 지도자로 세우셨고, 백성들 중에 즐거이 헌신할 이들을 세우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9 절)

**4. 권면 (10-11 절)**

1)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_\_\_\_\_를 선포하자고 권면했습니다.

- 흰 나귀를 탄 사람들 = 지도자들, 양탄자에 앉은 사람들 = 물질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 길에서 행하는 자 = 일반 대중들 곧 평민들을 말합니다. 나아가 드보라는 물 길은 우물가에 있는 여인들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노래했습니다.
-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모두가 예외 없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2) 드보라의 권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더 그녀를 지지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 언제나 바른 권면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선포는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5. 묘사 1. 각 지파들에서 나아오는 용사들 (13-18 절)**

- 1) 드보라는 모든 지파들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친히 적과 싸우시기 위해 임하셨다는 사실을 찬양했습니다. - 13 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 2) 5 지파 곧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잇사갈, 납달리는 전쟁에 참여했고,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죽음을 무릅쓰고 전투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 3) 그러나 르우벤을 비롯한 길르앗으로 대표된 요단 동편에 있던 므낫세 반지파와 단, 아셀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기 1. 그렇다면 이들은 왜 드보라를 돕지 않았을까?**

예레미야 48 장 10 절, “여호와와 그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_\_\_\_\_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6. 묘사 2. 이스라엘의 전투 (19-23 절)**

- 1) 19 절: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는 말은 전리품을 얻지 못했다는 말로 전쟁에 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20 절: “별들이 싸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동원해 이스라엘의 승리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시스라 군대의 정면에서 일어난 바람과 벼락과 폭우로 인해 그의 군대는 전멸했다고 설명합니다.
  - 하나님은 모든 자연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시며, 그의 선하신 뜻에 따라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 모든 자연현상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란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 3) 23 절: 메스로 성읍을 향한 저주
  - 메스로는 당시 이스라엘과 계약 의무 관계에 있던 성읍으로 기존 전투가 일어나던 지역 바로 옆에 위치한 성이었습니다.
  -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반항하거나 대항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일을 방관하거나 나태히 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것이란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7. 묘사 3. 시스라의 죽음 (24-27 절)**

- 1) 용감하게 하나님의 편에 선 여인은 그 어떤 여인보다도 복 받은 여인입니다.
- 2) 시스라의 머리가 여인 야엘에 의해 처참하게 부서진 것은 그 동안 그가 악한 머리를 짜내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란 생각할 수 있습니다.
- 3) 성경은 분명히 각 사람이 행한 행실대로 하나님께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시편 62 편 12 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_\_\_\_\_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마태복음 16 장 27 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_\_\_\_\_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 장 6-8 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_\_\_\_\_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디모데후서 4 장 14 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매 주께서 그 \_\_\_\_\_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베드로전서 1 장 17 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_\_\_\_\_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8. 묘사 4. 시스라의 어머니 (28-30 절)**

- 1) 시스라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_\_\_\_\_은 열매가 없는 죽은 소망이었습니다.
- 2) 그녀의 소망은 오직 전쟁에 익숙한 그의 아들과 그녀의 경험에 있었습니다.
- 3) '세상을 향해 품고 있는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는 늘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소망"을 간직하는 삶을 살기를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9. 결론. 드보라의 소망 (31 절)**

- 1) 하나님을 \_\_\_\_\_ 하는 자는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소망했습니다.

**생각하기 2.**

- 1) 드보라가 이런 찬양을 드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 2) 오늘 내용 속에서 개인적으로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나 믿음의 결단은..?